

사유와 관찰을 위한 사물

—《무심한 귀를 위한 애플타이저 A부터 C: 네오 프로덕트 선언》에 부쳐

1.

테이블 같은 가구부터 가전제품, 오브제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프로덕트' 들은 누군가의 사적 공간에 도착하기 전까지 수많은 질문 세례를 받는다. 견고하게 만들어졌는가. 공간과 잘 어울리는가. 편리한가. 그 자체로 아름다운가. 성능은 탁월한가. 이런 질문을 영원히 나열해볼 수 있을 것도 같지만... 뒤따를 모든 질문을 차치하고, 사용자가 가장 근본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질문은 이것이다. 이 물건이 필요한가?

2.

후니다 김의 전시 《무심한 귀를 위한 애플타이저 A 부터 C: 네오 프로덕트 선언》에 놓인 사물들도 동일한 질문과 마주한다. 작가가 '네오 프로덕트' 라는 명명하에 선보이는 <무심한 귀를 위한 애플타이저 A 부터 C>는 견고한 만듦새와 어느 공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깔끔한 디자인, 편리함이라는 부분을 모두 가볍게 충족한다. 그러나 이 네오 프로덕트의 필요와 성능은 보편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 물건을 손에 넣고 직접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이들이 어떤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는지, 얼마나 탁월한 성능을 지녔는지 우리는 아마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이 네오 프로덕트는 직접 경험해본 후에야 그것이 필요했음을 체감케 하기 때문이다.

이번 전시가 소개하는 세 개의 네오 프로덕트는 우리의 '청각'을 위한 것이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뻑뻑한 시청각 환경에 노출되어 수많은 소리를 듣느라 피로가 누적되고, 가끔은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도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무더진 우리의 청각을 위한 것이다. 후니다 김은 이렇게 질문한다. "시각 중심 매체로 세상을 읽고 이해하려는 흐름이 점점 강해지는 요즘, 직접적이고 딜레이 없이 내게 전달되는 '청각을 통한 관찰'로 세상을 읽어본 적이 있나?" 답하자면, 근래에 나는 청각을 통해 세상을 관찰하기는 커녕, 세상을 제대로 들어본 적도 거의 없다.

이제껏 프로덕트는 효율성과 편리함을 추구해왔고 날로 정교해지는 디자인은 그 심미성을 증가시켜왔다. 후니다 김은 여기에 '사유체'로서의 기능을 더한다. 네오 프로덕트는 그것이 자연스레 이끌어내는 행위를 다른 방식으로 관찰하게 하고, 이를 통해 미처 듣지 못했던 소리를, 자신의 감각을, 그리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낯설게 바라보게 한다. 이 프로덕트를 '네오'라 별칭할 수 있게 만드는 지점은 여기서 비롯된다.

3.

세 개의 사물들. 전시장에 들어가자마자 만나게 되는 네오 프로덕트는 <사운드 샤워>다. 손잡이 부분에 달린 전원을 켜고 물을 끼얹듯 이 '제품'을 머리 위에 대면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가 들려온다. 이 물소리를 듣는 시간은 온수로 몸을 씻는 것처럼 따뜻하고 촉각적인 경험을 선사한다. 이 과정은 우리가 샤워라는 개인적인 행위를 하는 동안 신체 뿐만 아니라 생각도 씻어준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장치를 다시 거치대에 내려놓는 순간 물소리는 소거되고, 그와 함께 뇌리를 맴돌던 생각도 내 몸을 떠났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중앙에 놓인 두 번째 네오 프로덕트는 <사운드 테이블>이다. 테이블에서 우리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식사를 하고, 일을 한다.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가구 중 하나인 테이블에 엮드려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주택가의 사운드 스케이프다. 집 근처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각자에게 몹시 친숙하겠지만, 우리는 그만큼 그 소리를 주의 깊게 청취하지 않는다. 손과 머리를 비운 채 테이블 아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는 경험은 꼭 어떤 미니어처를 들여다보며 세계를 관망하는 일과 닮았다.

녹색 커튼을 열면 만나게 되는 세 번째 네오 프로덕트는 <사운드 미러>다. 거울은 '빛의 반사를 이용하여 물체의 형상을 비추어보는 물건'으로 정의된다. 이 제품은 형상을 비추는 대신 우리에게 따뜻한 빛과 소리를 쏘인다. 우리는 이곳에서 나를 향한 빛과 소리에 몰입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자신의 감각을 천천히 관찰한다. <사운드 미러>의 방에서 시간을 보낸 뒤 밖으로 다시 나갔을 때의 감각은 전과 같지 않다.

이곳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허락된 네오 프로덕트들, 혹은 언젠가 나의 것이 될 수도 있는 이 제품들은 우리가 기성 프로덕트를 사용할 때 간과하던 것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거울과 테이블, 샤워기 외에도 일상에 녹아있던 장치들이 어떤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을지를 곰곰이 짚어본다. 문득 눈앞에 놓인 모든 물건이 생경해 보인다.

4.

'네오 프로덕트'는 새로운 프로덕트의 형식을 실험하는 일종의 프로토타입이다. 여기서 소개 된 세 가지 제품은 물론 그 자체로 감상의 대상이지만, 전시장에서의 짧은 시간만으로 작업의 지향점을 단번에 체화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작가는 이 제품/작품 감상 이후의 청각각이 보다 선연해지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 너무나 익숙해서 무심하게 지나쳤던 것, 인식의 네거티브 영역에 있던 것들을 꺼내온다. 이 일상적이고도 사적인 행위들이 선사하는 감각을 더욱 잘 되돌아보기 위해, 네오 프로덕트는 '사용자'와 차분히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린다.

5.

꽤 오랫동안 머리를 대고 엮드려있던 그 테이블에서 몸을 일으켜 커튼이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을 보고, 아이패드가 놓인 각도를 인지한다. 소곤거리는 관객들의 말소리와 냉난방기의 미세한 소음을 감지하며, 이 모든 감각의 중앙에 놓인 나 자신을 인지한다. 우리는 이곳을 나가면 가장 먼저 무슨 소리를, 어떻게 듣게 될 것인가?